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시장 안정 및 대외신인도 영향 없도록 지속 노력

-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개최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4.12.10.(화) 07:00 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융·외환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참석자들은 최근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나, 우리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과 대외건전성에 비해서는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고, 향후 시장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시장안정조치를 총동원하여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주식시장의 경우, 기관투자자의 매수가 지속되고 있으며 외국인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 만큼,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책임있는 역할을 지속하고 개인투자자도 보다 차분한 시각을 갖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외환시장은 세계 9위 수준의 4,154억불 규모 외환 보유액과 순대외금융자산 9,778억불(9월말) 등을 감안할 때 정부·한은의 시장 대응여력은 충분하며 과도한 시장 변동성에 대해서는 시장심리 반전을 거둘 수 있을 만큼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한 일본대사 면담(12.9, 기재부), 금융상황점검회의(12.9, 금융위), 은행권 간담회(12.9, 금감원) 등을 통해 현재 경제상황 및 정부의 시장안정 의지를 적극 공유해 나가고 있으며, 향후에도 3대 신용평가사 컨퍼런스콜(기재부), 주한 중국대사대리 면담(12.10, 기재부), 은행 국제금융담당임원 간담회(12.10, 한은), 국내 외국계은행 간담회(12.11, 한은), 글로벌 IB 애널리스트 간담회(12.10, 금감원) 등을 통해 최근 정치 상황이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최 부총리는 최근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경제 분야만큼은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되어 경제팀이 총력을 다해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기획재정부 <총괄>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	책임자	과 장 정 일 (044-215-2750)
		담당자	사무관 최봉석 (bongseokchoi@korea.kr)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책임자	과 장 유창연 (044-215-4710)
		담당자	사무관 신정원 (jungwonshin@korea.kr)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	책임자	과 장 김희재 (044-215-4730)
		담당자	사무관 이태윤 (lty703@korea.kr)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재완 (044-215-7610)
		담당자	사무관 이동휘 (hui1219@korea.kr)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	책임자	과 장 김성준 (02-2100-2850)
		담당자	사무관 장원석 (jangwonsuk@korea.kr)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책임자	과 장 고상범 (02-2100-2650)
		담당자	사무관 현지은 (jjeun88@korea.kr)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책임자	팀 장 박성진 (02-759-4777)
		담당자	과 장 최 신 (shin@bok.or.kr)
금융감독원	금융시장안정국 금융시장총괄팀	책임자	팀 장 김정훈 (02-3145-8180)
		담당자	수 석 신상주 (hipotes@fss.or.kr)

